

위는 태양광 아래는 쌀, 두 마리 토끼 잡는 영암군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모내기 시연회... 농가소득 증대 기대

쌀 재배와 태양광 발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1일 농업기술 센터에서 지역 농업인,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포장 모내기 시연회’를 개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논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패널 아래에서 농작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
이날 시연회는 지속가능 농업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의 조화를 모색하는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영암군이 진행하는 이 시범사업은, 논지의 다목적 활용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도 확산하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 등은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 아래에서 모내기 작업이 이뤄지는 시연회를 보며 시스템 안에서 기계화 영농이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영암군은 관련 실증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위기 대응,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인지 꼼꼼하게 실증하겠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혁신을 영암군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보성군은 옥수수 등 주요 화본과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거세미나방의 성충이 관내에서 올해 처음 발견됨에 따라, 옥수수 재배 농가에 적기 방제 및 정밀 예찰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비래 해충으로, 올해4월 21일 제주도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보성군에서는 5월 28일에 첫 성충이 발견됐다.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은 옥수수와 수수,

보성군, 열대거세미나방 성충 발견 옥수수 농가 신속 방제 당부
정밀 예찰 및 해충 밀도 증가 시 적기 대응 중요

벼 등 화본과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고, 열매 안으로 파고 들어가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상품성 및 수확량 감소 등 큰 피해를 유발한다. 보성군은 옥수수 주산지인 득량면과 화천면에 페로몬 트랩을 설치, 5월부터 매주 1회 정기 예찰 및 방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방제는 유충이 활동하는 야간 시간대를 고려해, 해뜨기 전이나 해지고 난 이후에 옥수수 전체에 약제를 충분히 살포해야 효과적이다.
군 관계자는 “열대거세미나방은 초기에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이라며 “농가에서는 옥수수 생육 상황을 살펴보며 세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올해 열대거세미나방 선제 대응을 위해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26 농가, 126.5ha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공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병해충 밀집 지역의 맞춤형 방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김윤기 기자

고흥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신규 귀농귀촌인 지역 정착 지원, 활력 넘치는 농촌사회 기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하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용자)’의 대상자를 오늘 6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귀농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 농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귀농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자금 세대 당 최대 7,5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2.0%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방식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도시에서 거주한 자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65세 이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혼 비농업인 ▲당해 연도

에 우리군으로 전입할 예정인 귀농 희망자이며, 귀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요건이 완화돼 세부 지침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농업 외 다른 산업 분야의 근로 기준이 완화돼 농업을 계속하는 조건 하에 농의 근로가 제한 없이 허용되며, 기존의 연간 농의 근로소득 3,700만 원 미만 요건은 폐지됐다. 또한, 기존에 세대주만 가능했던 신청 자격을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하면 되며, 고흥군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용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장흥 대덕읍, ‘농촌일손돕기’ 양파 수확에 구슬땀

장흥군 대덕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송병석)에서는 11일 본격적인 양파 수확기를 맞아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 돕기에는 대덕읍 공직자 15명이 참여해 오산마을 양파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냈다.
참여자들은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과 운반 작업에 온 힘을 쏟으며 농가의 고충을 함께 나눴다.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던 농가주는 “요즘 인건비도 오르고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직접 와서 도와주시니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송병석 대덕읍장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지속적인 일손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영광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만개 “꽃길 따라 힐링하세요”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영광군의 대표 관광지인 백수해안도로 대신항 주변에 조성한 해당화 군락지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화 군락지는 2023년에 약 2,933㎡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매년 초여름을 화려색으로 피어나며 장관을 이루는 꽃으로 해당화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 절경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정한 바다 풍경과 어우러진 해당화와 함께 힐링과 추억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은 해당화 군락지 주변에 간이 벤치를 설치하고, 안전한 관광을 위한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무안군, 이장단과 함께한 청렴직원 릴레이 진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1일 현경면 이장단과 함께 제15회 청렴직원 릴레이 전달식 ‘가장 청렴할 것 같은 직원을 찾아라!’를 진행했다.
15회차 이번 주 청렴직원으로는 현경면 정서는·망운면 정수진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릴레이는 현경면 이장협의회 45명의 마을 이장과 함께 진행되며,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전달식에서는 청렴 피켓과 청렴 소화가기 전달됐으며, 참석자들은 ‘잔불처럼 남은 부패, 청렴으로 완전 진화’라는 청렴 구호를 제창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무안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